

## HDC현대산업개발 '전주 태평 아이파크' 분양 성공 예감

## 신도심 · 구도심 사이 있는 핵심입지에 들어서 편의성 높아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8일 개관한 '전주 태평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간 총 2만8천여 명이 방문해 성공적인 분양이 예견되고 있다.

전주 태평 아이파크 견본주택에는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입장을 위한 긴 대기줄이 형성됐다. 내부 역시 유니트 관람 시 별도의 입장 대기가 필요할 정도로 붐볐으며, 청약 자격 및 상품에 대한 예비 청약자들의 끊임없는 체크로 상담소 또한 만석을 이뤘다. 고객들의 연령층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했다.

특히, 전주 태평 아이파크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 고객들의 발걸음에 견본주택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해 내방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위된 날씨를 고려한 불어행 및 어묵 등 따뜻한 먹거리를 준비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처럼 전주 태평 아이파크가 높은

견본주택에 젊은 부부 등 2만8000명 다녀가

오늘 특별공급 시작으로 내일 1순위 청약

인기를 끈 이유는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핵심 입지에 들어서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을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다 태평동에서 13년만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우수한 상품성과 합리적인 분양가로 한 몫 했다.

완산구 평화동에서 온 김모씨(35, 여)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년이 넘었는데다가 이번에는 꼭 내 집 마련을 마련하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다"면서 "태평동은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인데다가 아이와 학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청약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단지 내 설치되는 첨단 시스템에 대해서도 호평도 이어졌다. 효자동에

거주하는 박모씨(43, 여)는 "나가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미리 부를 수 있고, 조명과 난방 등을 어디서나 켜다 켜다 할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면서 "게다가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데 집 안에 공기청정 환기시스템까지 설치된다고 하니 이래서 다들 새 아파트에 사는구나 싶다"고 말했다.

전주 태평 아이파크는 전라북도 전주 완산구 태평동 123-19번지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총 1,31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1,045세대를 일반에 분양하며, 전용면적별 일 반분양 세대는 △59㎡ 445세대 △74㎡ 242세대 △84㎡ 358세대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시켰고, 낮은 건폐율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8일 개관한 '전주 태평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간 총 2만8천여 명이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넓은 공간 거리로 일조권 및 개방감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및 피트니스 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북 카페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단지 내 마련될 예정이다.

세대 내에는 드레스룸, 현관 창고, 복도 수납장 등의 수납공간(타입별

진행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전주시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청약금(200만원) 충족 시 주택 소유 및 재당첨 여부와 관계 없이 전라북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주 태평 아이파크는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60%) 이하 후불제를 실시하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HDC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견본주택 오픈 3일동안 정말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셨다"면서 "태평동에서 13년만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라는 희소성에 더해 합리적인 가격과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수요층이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견본주택은 완산구 효자동3가 1695-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22년 5월이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농업인의 날

## 기념 가래떡 나눔행사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건강한 먹거리 문화 확산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NH농협은행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가래떡을 나누는 '가래떡데이' 행사를 가졌다.

'가래떡-데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06년부터 농업인의 날을 알리고 쌀 소비촉진을 확산을 위해 매년 11월 11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전북농협은 매년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전북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NH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가래떡을 나누어 주며 시식은 시간을 가졌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막대과자 대신 농업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가래떡을 선물하는 날로 기념하자는 캠페인도 같이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 YOUTH 창업메이킹

## 체험캠프 27~29일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이 창업지원기관과 공동으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2019년 YOUTH 창업메이킹 체험캠프'를 개최한다.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무작위로 팀을 나눈 후 팀별 '물오르말' 퀴즈 및 창업 상상 '도전 골든벨'을 시작으로, 레크리에이션으로 팀별 친화력을 키운다. 팀 정비 후 창업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우리 창업했어요' 동영상 제작하고, 청소년의 메이커 정신 함양을 위해 '내가 꾸미는 캐릭터 컵' 및 '창작 놀이터 시제품 제작' 등 Making 체험도 이어진다. 이번 멘토의 도움으로 아이디어 고도화를 거친 창업 동영상은 평가 후 우수 작품을 선정·시상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 CEO 탄생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트렌드 및 창업 특강도 함께 진행되며, 뒤이어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 '그룹 장덕철'의 성공스토리도 공개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 현장 보급 '결실'

## 농진청, 분야별 기술보급사업 우수사례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신속히 보급해 농업기술 혁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분야별 기술보급사업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사례는 △농업 기술보급 혁신 분야 대상은 '곤충 페스타(축재)'를 개최해 다양한 곤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곤충산업과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 학교교육과 연계한 곤충

을 활용한 치유활동, 곤충산업분야 진로체험교실 운영 등 곤충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곤충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소비모델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농업 신기술 확산 분야 대상은 도시농업 분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초등학교 생활원에 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전문가 '마스터 가드너' 양성, 도시텃밭 교육과 소비자 대상 농업 가치 확산 활동 등의 성과를 인정 받은 제주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외연 확장 및 소득 확대' 사례가 수상했다.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분야 최우수상은 화성시농업기술센터의 '노지 포도의 과학적 토양 수분관리와 영

농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이며, PLS 조기 정착 지원 분야 최우수상은 금산시농업기술센터가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사례의 평가 기준은 농업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지역별 농촌진흥기관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과 적극적인 기술지도, 새로운 기술 정착을 위한 사업수행 충실성 등을 종합했다. 시상식은 이번 달 18일 한국농업연수원(장수군 소재)에서 열리는 '2019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열린다.

농촌진흥청 유승오 기술보급과장은 "올해 선정한 분야별 기술보급사업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농업 기술보급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난 6~8일 카자흐스탄 식품박람회(Food Expo Qazaqstan 2019)가 열린 가운데 방문객들이 한국의 발효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 한국 농식품 중앙아시아 수출 청신호

## aT, 카자흐 식품박람회 참가... 김치 · 젓갈 등 인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중앙아시아 물류허브인 카자흐스탄 경제중심지 알마티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식품박람회(Food Expo Qazaqstan 2019)에 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신선과일, 버섯, 젓갈, 유자차 등 카자흐스탄 식문화와 어울리고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14개 수출업체와 aT가 함께 시장개척에 나섰다.

aT는 최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식품트렌드를 반영하여 삼계탕 조리시연, 젓갈 시식행사 등을 진행했다. 김치가 6000달러의 현장 MOU를 체결한 것을 비롯해 한국관 참가 수출업체

들은 총 256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카자흐스탄은 오랜 유목생활로 인하여 저장하기 쉬운 식품과 절임류를 선호하며, 120여 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로 타문화권 음식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점에 있어 신북방지역 중 한국 농식품 수출유망 시장으로 꼽힌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한국관을 방문한 식품전문 바이어 아르만 씨는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발효식품인 김치와 젓갈은 독특한 식감과 짙은 맛이 어우러져 저장음식을 즐겨 먹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무주덕유산리조트

## 임차상인과 화합의 장

복합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종합 휴양지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이종혁)가 최근 리조트 내 카니발 세미나실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임차상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이종혁 대표이사과 임직원, 임차상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최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 등 리조트업계 전반에 걸친 고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중인 △가족호텔 리모델링 공사 △카니발 상가 내 지붕 보수 등 부속 건물 공사 △부대시설 신축 등 시설 투자 부분의 진행상황 및 계획을 임차상인들에게 설명드렸으며, △관광객 및 투숙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임차상인의 의견 경청 △임차상인들이 요청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접근,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통신문 기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도 우수식품의 베트남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한-베 음식문화축제에 참여했다.

## 도내기업, 베트남서 '주목'

## 전북도·경진원, 한-베트남 음식문화축제 참여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전북도 우수식품의 베트남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한-베 음식문화축제에 참여해 현장 판매액 12.3천불, 현장계약액 28만불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한-베 축제는 K-Pop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와 음식을 알리는 대규모 축제로 올해로 11회를 맞아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리타이포 공원 일대에서 개최됐다. 호안끼엠 리타이포 공원은 현지인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이번 행사는 현지지의 반응이 뜨거워 도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다. 행사는 참여업체가 직접 기업지원 부스를 운영하는 방식과 현지바이어가 물품선량을 구매해 판촉을 대행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여업체들이 베트남 시장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도내 아동의료를 생산하는 GOES는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한 판촉행

사로 호치민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판로를 하나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다. 또한 김재에 소재지를 둔 KC는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준비를 하는데 바이어 발골이 막연하고 시장진출이 어렵게 생각되었지만, 이번 축제 참여를 통해 베트남 시장을 몸소 느끼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홍삼캔디·젤리 취급업체인 매일제과는 판촉부스 참여를 통해 베트남 현지바이어와 25만불 상당의 계약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또한 한베축제에 참여한 한류스타들을 만나기 위해 여성,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높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업체 에나와 원스킨 등의 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다.

더불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하노이 K-market 4개 지점에서 진행된 전북농식품 베트남 판촉행사와 축제부스운영에 12개 도내농식품기업이 배, 냉동만두, 초코파이 등의 제품으로 참여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어린이 농생명 페스티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업인의 날인 11월 국립청소년농생명지원센터(원장 양혜관)에서 전주·군산·익산·김제시 6개 초등학교 5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직접 체험하는 전북농협 어린이 농생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가학생들은 종자와 토양 속 지렁이를 혐미경 등으로 관찰하는 농생명 교육교실, 3D펜을 활용한 곤충체험, 팝스

테이 마을과 로컬푸드 참여농가 등이 준비한 공예체험, 다육식물·천일홍원예체험, 최신 농기계 드론과 트랙터 관람 등으로 농업에 대한 상상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호풍기와 흉매를 활용한 전통 방식 벼 탈곡과 떡 매치기, 치즈피자, 디저트 만들기 등 농작물에서 음식이 되는 전 과정 체험으로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전달 받았다. /김윤상 기자